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전도사입니다

지난한해도 곁에서 저희 유스앤드 웨밀리 사역을 지켜보아주시고 기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한 후원금으로 지원해주셔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명의 스태프와 5명의 검정고시반 선생님들, 15명의 교도소 사역의 동역자들, 그리고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많은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수있었는지를 생각해볼때에 우리의 한계를 가볍게 일소해 버리시며 역사하시는 멋진 하나님앞에 다시금 찬양의 박수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지역을 초월하여 눈물의 기도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역자님들과 사랑의 정성으로 함께 하며 후원하시는 모든 동역자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들이 보여질때마다 크신 하나님앞에 아주 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뿐이라는 겸손한 생각으로 다시금 제모습을 추스르게 되는것을 보게 됩니다.

교도소선교가 팀사역으로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각교도소에 인종을 초월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사역의 시작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들에 대해 각교도소에서 서류심사와 허가를 위한 모든 수속들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로서 전도받아 사도바울처럼 그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방인철군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또한 부탁드립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또다른 감옥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못하고 아직도 마음을 열지못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주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자라나야할 재소자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소자 자치기관을협력보조하는 기관의역할을

감당하는 유스앤드 웨밀리 포커스와 교도행정부와의 관계가 주님안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수있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매일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들의 삶을 얽매고 힘들게 하고있는 모든 사슬들이 그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들이는 결단과 기도로 인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저 희 전문사역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제공하는데 사력을 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그들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해결은 결국 일시적인것에 불과하기에 이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검정고시반의 학생들 또한 저희의 상담지도와 학업지도를 통해 그들의 의식과 생활태도들이 놀라울정도로 달라지지만 그것을 초월한 주님안에서 근본적인 변화, 즉 주님에 대한 주권의식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는 생명의 기적이 있게 되어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매년 3번에 걸친 6박 7일의 야영캠프를 통해 교도소 방문, 월드비전, 헤비테트, 홈레스 쉼터, 양로원 방문등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자아상을 만들어가고 리더쉽 함양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슴이 따스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즉 삶에 진정한 회복의 기점이 되게 하므로 인한 삶에 대한 감사 기쁨이 만들어지는 광야캠프의 180명의 학생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이사회에 훌륭한 리더와 어려운 이웃들을 세우고 돕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미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저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 광야캠프 사역안에 계심을, 현장을 통해 늘 경험하게 되는것은 우리모든 사역자들의 힘이 되고 큰 감동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매년 3회에 걸쳐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유스갤러리아는 그들만의 건전한 문화가 없어 술, 마약 인터넷 중독으로 스러져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타락한것들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웃을수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노래, 춤, 연극, 미술, 패션쇼, 스포츠, 악기연주등등, 아 이들이 할수있는 모든 특기로 그들의 또래그룹앞에서 그것들을 선보이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열광하는 가운데 축쳐진 그들의 어깨가 펴지고 분노와 불안한 눈빛이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즐거운 청소년 한마당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대단합니다. 2시부터 7시까지의 긴행사임에도 아이들은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인 이자리에 그들이 스스로없이 순수한 웃음을 날리며 마음의 빗장을 열어제칠때 저희 사역자들과 유스갤러리아 멤버들은 기도로 준비한 메세지를 담은 노래, 찬양, 연극, 연주등으로 중간중간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거기모인 모든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그들이 맞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인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탁월한 효과를 만들어내게되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멘토링, 빅브라더스 빅 시스터스 프로그램,세미나와 신문 방송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특히 미디어의 힘을 통해 타주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로 꾸준히 상담지도를 받으시며 힘과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볼때 신문과 방송사역을 통한 상담과 부모교육은 실로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무쪼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자희 청소년과 가정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며 귀교회와 하시는 모든일들이 주님안에서 값지고 복된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진: 산수경관이 아름다운 캠프장에서)